

2022. 1. 4.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2.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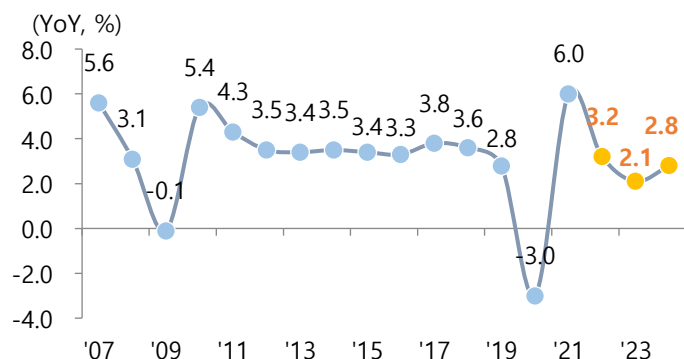
정예지 | 연구원(3705-6176)

- **세계(+0.1%p ↑):** 주요국 통화정책의 매파적 기조가 다소 강화된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세계경제 하방 압력 확대(BofA, JPM)
 - **미국(+0.2%p ↑):** 통화정책-금융여건 긴축의 누적효과로 소비·생산지표 하락(소매판매 -0.6%, 산업생산 -0.2%, mom) 등 경기 모멘텀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상반기 완만한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UBS, 232분기 성장전망 -0.9%, qoq saar)
 - 소비자물가 하락(10월 7.7%→11월 7.1% yoy)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고용시장(11월 비농업 일자리 +263,000명)과 서비스 물가(6.0% yoy) 상방 위험 잠재 등으로 연준의 매파적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Barclays)
 - **유로존(+0.1%p ↑):** 에너지 위기 완화로 12월 종합 PMI(속보치 48.8, 컨센서스 47.9) 등 일부 선행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산업생산(10월 20% mom) 부진 심화 등을 감안시 경기침체 회피는 역부족(Barclays)
 - ECB는 고물가(11월 10.1% yoy) 대응을 위해 금리인상을 지속하여 상반기 중 3.0~3.5% 최종금리 도달 예상
 - **중국(+0.2%p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PMI 하락(제조업 11월 48.0→12월 47.0, 비제조업 46.7→45.0) 등 경기가 급랭하는 조짐이나 집단면역 형성 및 경제활동 재개 시 5월 이후 경기반등 가능(JPM, 금년 하반기 성장전망 9% 연율)
 - **일본(-):** 미국유로존 경기침체 등 대외경제 부진이 주요 하방리스크이며 인플레이션이 41년래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11월 근원CPI +3.7% yoy) 금년에는 상승폭 둔화가 예상되면서 단기간내 추가적인 통화긴축 가능성은 제한적(Nomura)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2 ^f	2023 ^f	2024 ^f
Barclays	3.3	1.8	2.6
BNP Paribas	3.0	2.3	-
BoA-ML	3.4	2.3	3.2
Citi	3.0	1.9	2.8
Goldman Sachs	3.2	2.5	3.3
JP Morgan	3.3	2.2	2.6
Nomura	3.0	1.5	2.7
UBS	3.1	2.2	2.7
평균	3.2(0)	2.1(0.1)	2.8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대비, 구매력평가 (PPP)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각각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024 ^f
	22.4Q	23.1Q	23.2Q	23.3Q			
Barclays	1.5	0.0	-0.5	-1.0	2.0	0.3	0.4
BNP Paribas	-	-	-	-	1.9	0.0	-0.2
BoA-ML	0.5	-1.0	-2.0	-1.5	1.9	-0.3	0.9
Citi	1.7	1.5	0.5	-2.0	2.0	0.8	1.5
Goldman Sachs	1.7	0.7	1.0	1.2	2.0	1.3	1.6
JP Morgan	1.5	1.0	0.8	0.5	2.0	1.1	0.4
Nomura	-0.4	-1.2	-1.6	-1.0	1.9	-0.5	0.1
UBS	0.7	0.9	-0.9	-2.0	1.9	0.2	0.3
평균	1.0(0)	0.3(0.1)	-0.4(0.1)	-0.8(0.1)	2.0(0.1)	0.4(0.2)	0.6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024 ^f
	22.4Q	23.1Q	23.2Q	23.3Q			
Barclays	-1.7	-2.4	-1.0	0.1	3.3	-0.7	1.0
BNP Paribas	-	-	-	-	3.2	-0.5	1.3
BoA-ML	-1.2	-1.6	0.7	1.1	3.3	0.0	0.9
Citi	-2.9	-1.9	-0.2	1.7	3.1	-0.5	2.2
Goldman Sachs	-0.9	-1.4	-0.3	0.6	3.3	-0.1	1.4
JP Morgan	-0.5	-0.5	1.5	1.3	3.3	0.5	0.7
Nomura	-2.0	-2.4	-2.0	-1.6	3.3	-1.4	-0.1
UBS	-1.6	-0.8	1.2	1.2	3.2	0.2	0.8
평균	-1.5(0.1)	-1.6(0)	0.0(0)	0.6(0)	3.3(0.1)	-0.3(0.1)	1.0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024 ^f
	22.4Q	23.1Q	23.2Q	23.3Q			
Barclays	4.0	3.8	7.0	3.1	3.3	3.8	4.0
BNP Paribas	-	-	-	-	3.2	4.5	4.8
BoA-ML	(1.5)	(-8.0)	(11.5)	(27.0)	3.0	5.5	6.5
Citi	1.0	0.3	7.8	5.2	2.4	5.3	5.0
Goldman Sachs	1.7	1.1	7.1	4.8	2.6	5.2	5.2
JP Morgan	(0.8)	(2.0)	(6.1)	(10.0)	2.9	4.3	6.5
Nomura	1.5	1.3	4.3	4.2	2.8	4.8	5.5
UBS	2.0	1.8	6.9	4.2	2.7	4.9	4.8
평균	2.0(-1.3)	1.7(-1.0)	6.6(0.5)	4.3(0)	2.9(-0.2)	4.8(0.2)	5.3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평균의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024 ^f
	22.4Q	23.1Q	23.2Q	23.3Q			
Barclays	2.8	0.7	0.3	0.5	1.2	1.0	0.7
BNP Paribas	-	-	-	-	1.2	0.9	0.3
BoA-ML	3.8	1.8	-0.2	-0.8	1.5	1.2	1.2
Citi	3.0	0.6	1.1	0.3	1.2	1.2	1.0
Goldman Sachs	2.9	1.0	1.0	1.1	1.2	1.4	1.4
JP Morgan	3.5	2.0	1.2	0.5	1.2	1.6	0.4
Nomura	5.1	1.6	1.4	0.4	1.3	1.9	0.9
UBS	3.0	0.2	1.4	0.2	1.2	1.1	1.2
평균	3.4(-0.1)	1.1(0)	0.9(0)	0.3(-0.1)	1.3(-0.2)	1.3(0)	0.9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6 혹은 yjju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